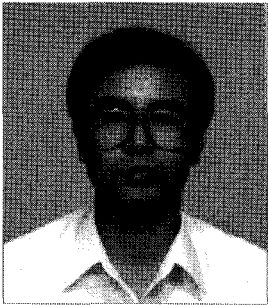


# 제초제 살포는 잡초생육 쇠퇴기에

철저한 관리로 잡초의 군락형성 막아야



김 영 진

축산시험장 초지생태연구실

## 뚝새풀 (*Alopecurus aequalis*)

논과 밭, 초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햇빛이 잘 들고 습하며 질소성분이 많고 비옥한 식양토에서 잘 자라며 수분과 질소에 대한 지표(指標)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 풀은 키가 30~40cm이고 가을에 발생하며 이듬해 4~6월에 꽃이 피는 월년생이다. 가을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이 잡초는 목초의 초기 정착에 큰 해를 주는데, 이른 봄부터 생육이 일찍 시작되어 초여름까지 목초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뚝새풀은 화분과 잡초이므로 초지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이 잡초만 부분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

다. 제초제를 살포하면 화분과 목초도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동전에 목초를 높게 예취해 주고 이듬해 봄부터 적량시비 등 초지를 잘 관리·이용하여 목초의 생육을 좋게하고 이 잡초의 생육을 억제해 주는 것이 좋다. 초지에 이 잡초가 군락상태로 우점되어 있으면 초지를 완전갱신하여야 한다.

제초제 살포시기는 생육이 왕성한 4~5월이 좋으며, 그라목손 300ml 또는 글라신액제 300ml를 물 120ℓ(6말)에 희석하여 뚝새풀 우점지에 살포한다. 이때 약제가 날려 주위의 목초에 묻지 않도록 한다.

##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논·밭·초지 등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토양수분에 대한 지표(指標)식물이다. 양지식물인 이 잡초는 비옥도가 중정도인 토양에서 잘 자란다. 키는 10~60cm이고 봄에 발생하여 8~9월에 꽃이 피는 일년생이며 종자로 번식한다. 목초의 생육이 불량한 습한 곳에 쉽게 발생하며 가축이 잘 뜯지 않기 때문에 점차 세력을 확

대, 군락을 형성하므로 수량과 목초의 품질이 저하된다.

방동사니는 습지에 발생하므로 우선 그 지역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수분을 조절하여야 하며,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초제를 살포한다. 제초제 살포는 생육 쇠퇴기인 6~8월이 좋다.

많이 발생한 곳은 모든 풀을 죽이고 초지를 완전 갱신하는 것이 좋는데 이때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나 그라목손 3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 개밀 (*Agropyron tsukushiense*)

밭·길·초지 등에 자생한다. 햇빛이 잘 들고 질소성분이 다소 많은 비옥하고 수분이 적당한 약산성 내지 중성의 사질양토에서



뚝새풀/목초의 초기정착에 큰 피해를 주는 월년생잡초.



방동사나/중정도의 비옥도에서 잘 자라는 양지식물.

잘 자란다.

키가 50~100 cm이고 총생하며 6~7월에 꽃이 피는 다년생 식물이며 종자로 번식한다. 주로 약간 건조한 초지에서 발생하고 기호성이 좋지 않으며 한번 발생하면 쉽게 번식하므로 제거하기 어렵다.

개밀은 주로 초지에서 발생하며 화본과목초와 같이 생육하므로 제거하기 어려운 잡초이다. 그러므로 이 잡초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조제로 살초한 후 완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제 살포는 생육 최성기인 6~7월이 좋다.

많이 발생한 곳은 모든 풀을 죽이고 초지를 완전 갱신하는 것이 좋는데 이때 300평당 글라신액제 4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 벼룩나물 (*Stellaria alsine*)

밭이나 논·초지 등 습하고 비교적 양지바른 곳의 질소분이 적고 다소 척박한 산성토양이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월년생 잡초. 키는 15~25cm이고 가을에 발생하여 이듬해 4~5월에 꽃이 피며 종자로 번식한다. 이 잡초는 군락을 형성하며 땅에 낮게 깔리므로 가을에 조성한 초지에 목초의 정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이른 봄부터 생육이 시작되므로 목초의 초기생육을 저해한다.

벼룩나물은 월년생 잡초로서 종자로 번식하며 초지에서 군락을 형성하여 자생하므로 화학적방제가 용이하다. 제조제 사용시기는 가을(10월상순)과 이듬해 생육최성기인 4~5월이다. 초지조성 당년 가을 화본과목초의 정착과 초기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300평당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전면 살포해주고 두 과목초는 이듬해 봄에 보파한다.

한편 생육최성기에는 300평당



개밀/화본과목초와 함께 생육, 방제가 곤란한 잡초

글라신액제 300ml나 그라목손 300ml를, 화본과목초가 비교적 많이 생육하고 있어 이것을 살리고 벼룩나물과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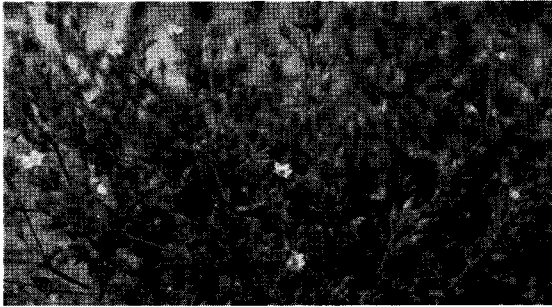
### 별꽃 (*Stellaria media*)

밭이나 길옆·초지 등 약간 습한 곳에서 잘자란다. 키는 10~20cm이며 그늘에서 비교적 잘자라고, 질소성분이 많은 약알카리성의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가을에 발생하여 이듬해 5~6월에 꽃이 피는 월년생 식물이며 종자로 번식한다. 초지의 약간 습한 곳에 군락을 형성하여 생육하며 이러한 곳에서는 목초의 생육이 불량하여 초지가 부실화되고 목초의 수량이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별꽃은 가을에 발생하여 이른봄부터 초지에서 왕성하게 자라고 군락을 형성하므로 화학적 방제가 용이하다. 제조제 사용시기는 생



벼룩나물/척박한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월년생 잡초



벌꽃/습한 초지에 군락을 형성하는 음지성 잡초



꽃다지/가을에 발생하여 많은 종자를 생산하는 월년생잡초

육최성기인 4~6월이 적기이며, 종자가 맺히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제초제 사용량은 화분과 목초가 거의 없어 초지를 완전갱신코자 할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를 살포하며, 화분과목초가 비교적 많이 생육하고 있어 이것을 살리고 벌꽃과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ℓ 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 꽃다지 (*Draba nemorosa*)

밭이나 초지 등 벌이 잘 들고 거름기가 다소 있는 습하지 않고 약산성내지 약알카리성 토양이면 어디서나 잘자란다. 꽃다지는 키가 20~30cm이며 주로 가을에 발생하여 이듬해 5~6월에 꽃이 피는 월년생 잡초로서 종자로 번식하는데 아주 작은 많은 종자가 맺힌다. 초지 전역에 퍼져 생육하지만 목초가 무성한 곳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며 생산성이 낮은 초지에 냉이와 같이 군락을 형성하여 초

지가 부실화되고 목초의 수량이나 품질을 저하시킨다.

꽃다지는 월년생 잡초로서 종자로 번식하며 이른봄 초지에서 군락을 형성하므로 화학적방제가 용이하다.

그러나 잡초는 한번의 방제로 끝나면 땅속에 있는 종자에 의해 다시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제초제 살포는 생육최성기인 4~5월 즉 종자가 맺히기 전이 좋다. 제초제 사용량은 초지를 완전 갱신코자 할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 또는 그라목손 300ml를, 화분과목초가 비교적 많이 생육하고 있어 이것을 살리고 꽃다지와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ℓ 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북아메리카에서 귀화한 일년생 잡초. 햇빛이 잘 들고 건조하며 자갈이 섞인 모래흙으로 비옥도가 중정도되는 중성 내지 약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키는 100cm내외이며 꽃은 8~9월에 피고 종자로서 번식한다. 이 풀은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건조한 곳에서도 생육이 잘되며 종자가 많이 맺히고 또 기축이 뜯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초지가 부실화된 물론 수량과 목초의 품질이 점차 하락하는 악성잡초중의 하나이다.

돼지풀은 비교적 건조한 초지에서, 목초가 잘 자랄수 없는 곳에



돼지풀/북아메리카에서 귀화한 일년생잡초



개망초/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월년생잡초

서도 생육하고 번식속도가 빠른 일년생풀이다. 이 잡초가 발생하면 자주 예취하여 종자가 맺히지 못하게 하여야 하지만 많은 면적에 발생하면 제초제를 살포한후 보파 또는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초제 살포시기는 생육최성기인 6~8월이 좋다. 목초가 거의 없어 초지를 완전갱신코자 할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나 그라목손 300ml를, 화본과목초가 많이 있어 이것을 살리고 돼지풀과 기타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 개망초 (*Erigeron annuus*)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잡초로 월년생이며 키는 50~100cm이고 꽃은 6~9월에 핀다. 종자로 번식하며 건조한 곳보다는 약간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과습한 조건에서는 전혀 발아하지 않는다. 9~10월경발생하여



쇠별꽃/사료포에서 작물이 어릴때 특히 피해가 심하다.

월동하며 연중 생육하는데 약간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비교적 잘 자란다. 주로 관리가 부실한 초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목초가 죽은 빈땅에 발생하며 인가나 경작지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개망초는 종자로 번식하는 월년생 잡초로서 꽃이 피기전에 수시로 제거하는 것(예취 등)이 가장 좋은 방제법이지만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면적에 맞게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초제 살포시기는 생육최성기인 5~7월에 300평당 글라신액제 400ml 또는 반벨액제 2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그러나 화본과목초를 살리고자 할때는 글라신액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쇠별꽃 (*Stellaria aquatica*)

밭이나 초지 등 다소 습하고 그늘지며 거름기가 비교적 풍부한 약산성의 토양이면 어디서나 잘자

라는 2년생 또는 다년생 잡초. 키는 20~50cm이며 이른봄부터 많이 발생하여 5~6월에 꽃이 피고 종자로 번식한다. 초지의 습한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여 군락을 형성하므로 목초에 피해를 주며 사료포에서는 작물이 어릴때 특히 피해가 심하다.

쇠별꽃은 종자로 번식하며 이른봄 부터 초지에 군락을 형성하여 자생하므로 화학적방제가 용이하다. 제초제는 생육최성기인 4~6월의 종자가 맺히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제초제를 사용하여 초지를 완전갱신코자 할 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를, 화본과목초가 많이 생육하고 있어 이것을 살리고 쇠별꽃과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ℓ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 깨풀 (*Acalypha australis*)

비교적 햇빛이 잘들고 토양수분이 적당하며 비옥도가 중정도인 토양에서 잘 자란다. 키는



깨풀/봄철 일찍부터 발생, 목초의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20~50cm이고 봄에 발생하여 7~8월에 꽃이 피는 일년생 식물로서 종자로 번식한다. 봄철 일찍부터 생육이 시작되어 목초의 생육이 불량한 곳에 쉽게 침입하며 군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초지가 부실화되고 수량과 목초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다.

개풀은 꽃이 피기전에 자주 예취하여 종자가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나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초제를 이용하여 살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초제 살포는 생육최성기인 6~7월이 좋다.

화분과목초가 거의 없어 초지를 완전 갱신하고자 할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나 그라목손 300ml를 살포하고 화분과목초가 많이 있어 개풀과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120l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길가·마을빈터·밭근처·초지 등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콩다닥냉이/건조한 초지에 발생, 번식력이 강하다.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잡초. 양지식물이며 햇빛이 잘드는 건조한 곳의 비교적 비옥한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이 잡초는 키는 30~50cm. 주로 가을에 발생하여 이듬해 5~6월에 꽃이 피는 일년생 식물이며 종자로 번식한다. 목초의 생육이 불량하고 건조한 초지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가축이 잘 뜯지 않으므로 빠르게 번식한다.

콩다닥냉이는 자주베어 종자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많이 발생한 곳은 제초제를 살포한 후 보파 또는 완전갱신한다. 제초제 살포는 생육최성기인 4~5월이 좋다. 초지를 완전 갱신하고자 할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나 그라목손 300ml를, 화분과목초가 많이 있어 콩다닥냉이와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l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들개풀/꽃피기전에 자주 예취하면 제거할 수 있다.

**들개풀 (Mosla punctulata)**

밭·초지·야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햇빛이 다소 잘 들고 수분이 적당하며 비옥도가 중 정도인 토양에서 잘자란다. 키는 20~60cm. 봄에 발생하여 8~9월에 꽃이 피는 일년생 식물이며 종자로 번식한다. 봄철 목초의 생육이 불량하고 다소 습한 곳에 쉽게 발생하여 점차 세력을 확장, 군락을 형성하여 수량과 목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들개풀은 꽃이 피기전에 자주 예취하여 종자가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나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초제를 사용한다. 제초제 살포는 생육최성기인 6~8월이 좋다. 화분과목초가 거의 없어 초지를 완전 갱신하고자 할 때는 300평당 글라신액제 300ml나 그라목손 300ml를 살포하며, 화분과목초가 많이 있어 들개풀과 광엽초만 없애고자 할때는 반벨액제 100ml를 물 120l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농약정보**